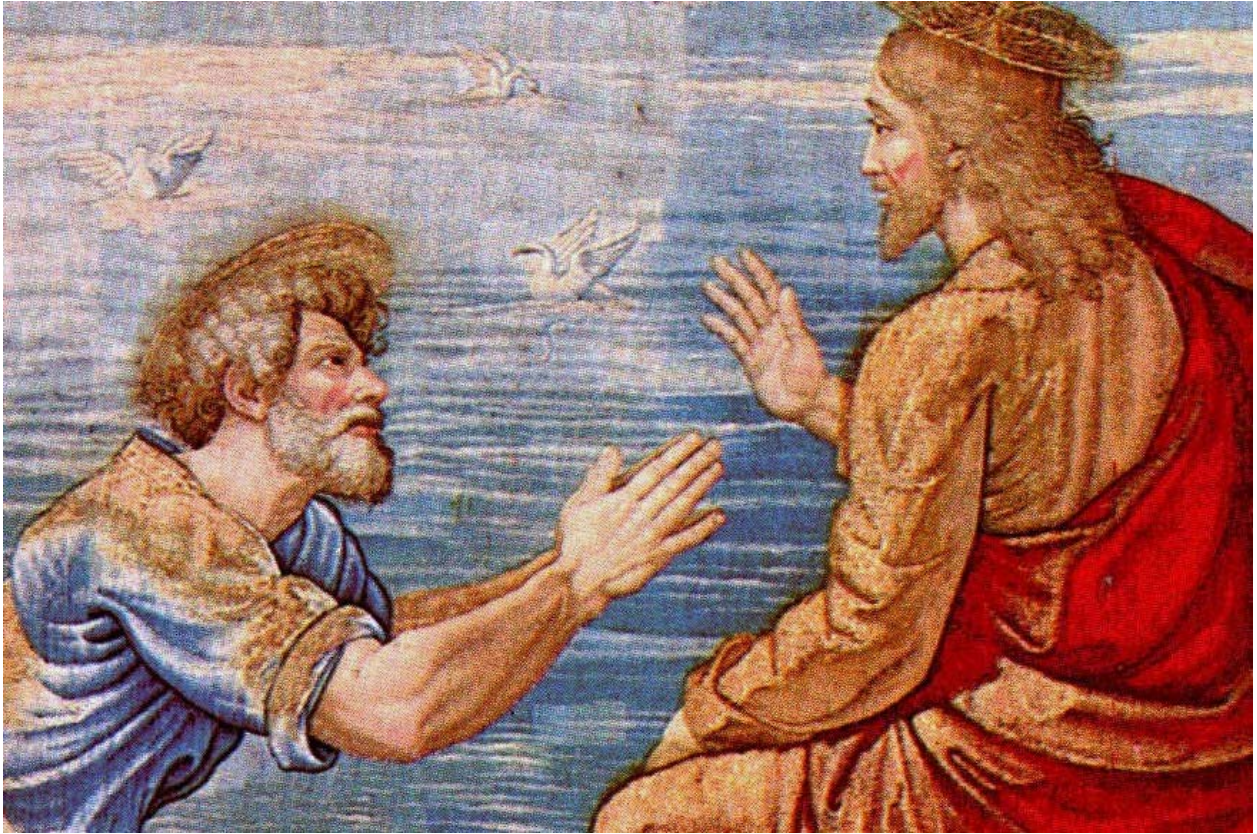


국가형제회 회장 메세지
Tom Bello, OFS

재속 프란치스코 형제회 봉사자의 마지막 테스트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첫번째 “봉사자”인 베드로 성인과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대화를 봅니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들을 돌보아라.”

예수님께서 다시 두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예수님께서 다시 두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요한 21, 15-17)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이 4 복음서 가운데 요한 복음이 가장 나중에 쓰여졌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대화는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주신 마지막 테스트입니다. “마지막”이라고 한 것은 이것이 첫번째 테스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봉사자의 첫 테스트는 미국 문화에서는 별로 먹혀들어 갈 것 같지 않습니다. 대부분 성서학자들은 마르코복음이 4 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졌다고 하는데, 주님께서 시몬(베드로)와 동생 안드레아에게 하신 첫 말씀은 “따라 오너라” 였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마르 1, 17)

“따라 오너라”할 때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예, 따라 가겠습니다.”하거나 “아니, 못 따라 가겠습니다.”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 오너라”라고 하는 말은 결코 대화나 토의의 대상이 아닙니다.

주님이 첫 “봉사자”에게 하신 첫 테스트는 순종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주님을 따라 가든지, 안 가든지 할 수 있습니다. 즉 주님께 순종하던지 않던지입니다. 시몬은 순종하여 따랐고, 안드레아와 다른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님을 따르면 어떻게 될지를 몰랐습니다. 어떻게 알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몇사람이나 순종의 테스트를 “맹목적”으로 받아 들일까요? 제 생각으로는 종신 서약을 한 우리 모두는 이 테스트를 받아 들였습니다. 1983년 6월 12일 종신서약을 할 때, 저는 솔직히 제 앞에 무슨 일이 있을 지를 몰랐습니다. 순종은 아마도 첫 테스트로 나쁘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무엇이 두번째 테스트일까요? 복음서에 보면, 처음부터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심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의 예를 세가지 들자면 전문의나 응급실도 없는 시대에서 장모의 열병(마르 1,30), 호수의 풍랑(마르 4,37-40), 그리고 마귀를 쫓아내지 못한 것입니다.(마르 5,1-20) 그리고,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도전과 테스트를 겪을 때에, 주님은 “두려워 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마르 5,36)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두번째 테스트는 향주덕(대신덕 對神德)의 첫번째인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느님의 선물이고, 믿음의 실천은 우리를 하느님께로 인도합니다. 히브리서 11 장 1 장은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보증이며 보이지 않는 실체들의 확증입니다.” 라고 합니다. 제게는 믿음과 순종은 다른 것으로서, 모든 봉사자들도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 처럼 자신의 믿음을 테스트 받을 것입니다. 봉사자로서 우리가 받는 테스트가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고, 또 주님의 은총으로 우리가 서로의 믿음을 굳건하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하였듯이 “나는 너의 믿음이 꺼지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그러니 네가 돌아오거든 네 형제들의 힘을 복돋아 주어라.”(루카 22,32)

여기서 복음서에 나오는 테스트와 도전을 모두 다 찾아 볼 수는 없습니다. 베드로로 시작했으니 주님의 첫번째 “형제회 봉사자”인 베드로 이야기를 조금 더 하고 베드로에서 마치겠습니다. 베드로는 또 다른 어떤 테스트를 받아야 할까요? 주님은 베드로를 어떻게 봉사자로 준비시켰었나요?

전에도 쓴 적이 있지만, 저는 물위를 걸으려는 베드로의 시도(마태 14,28-31)가 계속 생각납니다. 주님은 이 때에도 베드로에게 “오너라”라고 한 마디 하십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이것은 순종이나 믿음의 테스트가 아니라 촛점의 테스트입니다. 베드로는 순종했고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께만 촛점을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께 그의 촛점을 맞추고 있는 동안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거센 풍랑과 자신에 대한 의구가 떠오르는 순간 그는 돌처럼 가라 앉았습니다.

물 위를 걸으려는 형제회 봉사자를 아직 본 적이 없지만, 인간의 제한된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 이상을 해 보려는 봉사자들은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주위환경이나 사람들에게 주의를 돌릴 때마다, 우리는, 적어도 저는 물에 빠졌습니다.

또 인지(認知)의 테스트(마태 16,13-20)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는 알아야만 합니다. 구세주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하느님이시며 참사람이라고 선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형제회의 봉사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봉사자에게 있어서 또 하나의 커다란 테스트는 용서의 테스트입니다. 베드로 아닌 어떤 제자가 자기에게 잘못된 형제를 몇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라고 물을 수 있겠습니까? 일곱 번이요? 이 테스트는 얼마나 용서해 주어야 하느냐 하는 것인데, 저는 전혀 용서를 해 줄 수 없다는 봉사자와 이야기해 본 적도 있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찬 지도자라고 말하지만, 복수심에 차있거나 수동-공격적 (passive/aggressive) 일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한 것을 싫어하고, 또는 그들이 했으리라고 생각하면서 이유없이 싫어할 때, 우리는 이 용서의 테스트에 실패합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용서에는 얼마나 몇번이나 라는 제한이 없다고 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된 형제 (또는 자매)를 일곱번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일흔 일곱번 (어떤 번역에는 일흔 번씩 일곱 번)을 용서해야 합니다. (마태 18, 21-22)

그리고, 수난기에서 예수님이 잡혀 가셨을때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있도록 요구되었으나, 그는 당연히 주님을 세번씩 부인하였습니다.(마태 26,69-75). 그 테스트는 어쩌면 순교의 테스트일 수도 있습니다. 봉사자인 나는 죽음에 처하게 될 때에도 주님께 충실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순교의 테스트를 받아 보지 못했고, 미국내에서 아무도 이런 사람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작년 11 월 아씨시에서 있었던 국제 형제회 모임에서 중국, 우크라이나, 러시아에서 오신 수녀님들, 베들레헴과 나이지리아에서 오신 수사님들을 만났는데, (죄송하지만 이름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그 분들이 조만간 그런 테스트를 받을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런 테스트를 받고 있는 분, 앞으로 받으실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 순교의 위험이 있는 테스트도 주님께서 베드로와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테스트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마지막 테스트는 사랑의 테스트입니다.

주님은 왜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고 세번씩이나 물었을까요? 물론 베드로가 세번 부인한 것을 주님도 베드로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절대로 베드로를 나무라거나 질책하지 않으시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그 보다는 주님이 가르칠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인 사랑을 베드로가 이제부터 실천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 봉사자들이 가지고 있는 대개의 문제나 실패에 대한 해답은 사랑입니다. 제한되고 불완전한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끊임없이 항상 우리를 위하여 흐르고 있는 주님의 사랑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기꺼이 받아들이면 그 사랑은 주님으로 부터 흘러 나와서 우리를 통하여 형제 자매들에게 가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이런 사랑이 없다면 우리 형제회의 모든 봉사직은 다소 위선입니다. 그러한 사랑이 없으면, 큰 믿음도 기꺼이 목숨을 내놓는 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오로 성인이 쓴 것과 같이 “나에게 산을 옮길 수 있는 큰 믿음이 있다 하여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 것도 아닙니다. 내가 모든 재산을 나누어 주고 내 몸까지 자랑스레 넘겨준다 하여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1 코린 13, 2b-3)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형제회 봉사직은 저희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코 저희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봉사직은 결국은 사랑입니다. 사랑과 봉사입니다. 저희가 사랑이 아닌 다른 것들, 명성을 얻거나, 주의를 끌거나, 무료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형제회의 누구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등등을 찾는다면, 저희는 저희의 시간, 나아가서는 형제회의 시간을, 최악에는 주님의 은총과 선물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저희가 프란치스칸의 방식으로 구원을 향하여 가는 길에서 여러 사람과 여러 상황을 통하여 여러가지 방법으로 저희를 테스트하십니다. 저희가 테스트에 실패할 때에 저희를 일으켜 주십시오. 저희의 실패에서 당신의 사랑과 자비를 더욱 더 신뢰하는 것을 배우고, 그 사랑과 자비를 저희의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